

첫 선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용서주일 2020 년 3 월 1 일)

교회는 오늘,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한, 인류역사에 있었던 엄청난 비극을 기억합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인간은 창조주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느님께 불순종했고, 악마를 따랐으며 이로 인해 타락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밝혀준 것처럼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끔 도와주고 용서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넘겼고, 하와는 "뱀이 저를 꾀어서 먹었습니다." (창세기 3:13)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소통이 차단되어버린 결과로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의 삶은 모두가 환희였지만, 에덴동산 밖의 현실은 험난하고 고통스러웠으며, 빵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 일해야만 했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했고,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힘들게 개간하고 경작해야만 했습니다. 질병, 슬픔, 자연재해, 그리고 자원의 부족이 생겼고,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해야만 겨우 한 끼의 음식을 장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 3:18 참조).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 건너편에 있으면서 그들이 처한 불행한 현실에 슬퍼했습니다. 과거의 행복을 현재의 불행과 비교하고, 우울한 미래를 예견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인류에게도 역시 이 고통과 한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런 슬픈 사건을 기억하도록 합니까? 그 답은 오늘 낭독된 시냇사리온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금식하지 않았으며 금단의 열매를 먹었기에 이 모든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사순절 금식 기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큰 해를 입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꺼이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쁘게 금식을 받아들이도록 서로 격려합니다.

오늘 부르는 성가들은 다음과 같이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금식을 지키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미덕이 넘치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다시 낙원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복음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서둘러서 금식 기간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관과 스티히라 4)

또한 다음과 같은 성가도 있습니다.

"아담처럼 낙원 밖에서 슬퍼하지 말고, 낙원의 기쁨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사람은 절제를 갈망하십시오." (조과 카티즈마)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더 높은 수준의 영적 문제에만 관심 있다고 하면서 금식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며 잘못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40 일 동안 엄격하게 금식을 지키셨습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 교회 신자들도 금식했습니다. 어떻게 금식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오늘 복음경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금식을 지키는 날과 기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정해졌습니다. 금식함으로써 얻게 되는 놀랍고도 기적적인 사례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은 금식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금식은 높은 영적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우리 목적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귀중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욕망을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얻어, 신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교리에 따라 건강에 문제가 있고 신체장애나 병이 있는 사람은 교회가 정한 금식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사제의 인도에 따라 금식이 조정됩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가 정한 금식을 감면받는다 해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교회에 대해 순종마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 여러분, 내일부터 대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다시 열어주시기 위해 고난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금식을 하면서, 작은 절제를 통한 희생을 주님께 드리도록 결심합시다.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과 함께, 성 대 바실리오스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께 영적인 금식도 바치도록 합시다. "음식만 절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된 금식이란 음식을 절제하는 금식과 나쁜 일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언어를 다스리고, 화를 내지 않고, 욕정들에서 해방되고, 상대방을 비방하기를 멈추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 대 바실리오스 금식에 관하여 2, 7. PG 31, 196D)

이와 같이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내일부터 '덕행의 경기장'으로 들어갑시다.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경기가 승리로 끝나도록 해서, 고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거룩한 고난과 거룩한 부활에 경배드리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합시다. 아멘